

민주 “무능 與, 당권싸움에 정신 팔려...국정책임 망각”

임시회 일몰법, 北무인기 추궁 예고 “與 위기 방치, 반드시 국회 열 것” 與측 北무인기 공세에 윤리위 언급 “나경원도 맘에 안 들면 처내” 비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임시국회 개막일인 9일 정부여당의 안보와 경제 무능을 비판하며 민생 경제를 부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양대 축인 민생, 안보가 뿌리 채 흔들린다.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 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은 말쑥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 팔렸다”며 “집권 세력 전체가 국정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월 임시회 개시를 언급하고 “민생 경제 해법을 마련하고 일몰법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경계, 작전에 실패하고 참사를 은폐하려 한 국기 파괴, 문란을 엄정 추궁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하고 내각을 개편해 변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곳곳이 위기 아닌 곳이 없다”며 “한시가 급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관련 대책을 시급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 문을 닫고 쉴 공리를 중단하고 집권여당 담게 즉각 국회에 출석해 안보 위기와 경제난 해소에 책임을 다하라”고 했다. 또 “방탄 타령으로 시간을 축낼 만큼 한가롭지 않다”며 “국민의힘이 위기 상황을 방지하려 한다면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결단으

로라도 국회 문을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해 “합리적 지적에 색깔론으로 공격하고, 내통설에 이어 우리 당이 꼭두각시란 거짓 선동도 했다”면서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법적 조치를 거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무인기 침투 사태 관련 정부여당 측 언급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으며 “내통했다고 말한 데 대해선 법적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비행금지구역이 뚫린 것을 몰랐다면 무능, 숨기려 했다면 반역”이라며 “이번 사건은 마땅히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가 37일 활보했다는 건 가짜뉴스. 어떻게 37일 비행 하나”라며 “대형사고 저지르고도 전임 정부 탓할 거면 왜 정권 달라고 했냐”고 성토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언론 탄압과 수사 관련 비판 목소리도 지속 제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정권의 언론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자유는 만인의 자유가 아닌 나만을 위한 자유,



만인 구속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나경원조차 맘에 안 들면 처내는 정권. 당원 100% 선거에 전두환식 체육관 선거도 못 미더웠나”라며 “여당 내에서도 갈라치기가 횡행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학자 양심까지 죄로 만들고 있다”,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무리

서동욱 의장 “어르신들이 행복한 복지 전남 실현에 더욱 힘쓸 것”

최근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2023년 신년 인사회 참석



서동욱 전남도의장은 최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2023년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다. 서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주역으로 전남 발전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셨다”며 “그동안 사회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전남은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며 “그런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에 있어 노인복지의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며 “노인복지의 핵심인 건강과 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좋은 일자리를 꾸준히 확보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복지 전남을 만들기 위해 올 해 전남도의회도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며 “새해에도 삶의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민주 “이재명, 검찰석 다수 동행 만류...당내부선 많이 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 당일 지도부 등 많은 인원이 동행하는 것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당 내에선 전체적으로 많이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을 전해졌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검찰 출석 시

“최고위원, 의원들 많이 가잔 분위기”

지도부 동행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이 오는 것은 만류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최고위원이나 당 의원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많이 가야하는 게 아니란 얘기가 있다”고 했다. 수사 관련 당 내 기류에 관해선 “개인에 대한 게 아닌 야당에 대한 탄압 일환으로 진행된다고 보고, 최고위원뿐 아니라 당 의원들도 단합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대면 조사를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을 예정하고 있다. 출석 전 입장 표명 가능성도 관측된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당당하게 조사를 임하겠다고 말했다고, 아마 할 말은 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출석하며, 필요한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 입장에 관해선 “두산에 대한 부분은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관련 행정 처분에 대한 문제, 성남FC는 개별 기업의 광고 행위로 전혀 별개의 상황이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자산 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씨의 언론인 상대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선 “언론인 관련, 50억 클럽 관련해 검찰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김씨 관련 의혹에 대한 당 입장 표명 여부에 대해선 “필요하면 내겠으나 기존 우리 입장은 자금이 흘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선 조사, 진상규명하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 대표는 사안과 무관하다는 게 우리 입장이며, 관련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게 탄압이라는 것”이라며 “문제되는 자금 출처, 사 용처에 대해 철저 조사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